

게리 예이츠 박사, 제12권, 28번째 세션, 스가랴, 2부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게리 예이츠 박사와 12장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28세션, 스가랴서 2부입니다.

이 세션은 스가랴서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이며 선지자 학개와 하나님을 통해 백성을 매우 중요한 일이자 중요한 책임, 그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역할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학개를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그분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너희 앞에 보이는 산들이 장애물임을 알려 주신다. 당신이 내 힘이나 당신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비행기로 줄이겠습니다. 당신은 내 힘과 내 영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격려의 메시지와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 문제는 책의 시작 부분에서 다루어집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은 스가랴에게 주어진 밤의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현재와 아직은 아닌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은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도우시는 부분, 즉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축복이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족과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궁극적으로 이 두 역할을 결합할 의로운 지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인 7장과 8장에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도전이 제시됩니다. 이 책의 특정 부분은 금식과 관련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회개의 문제와 이스라엘 측에서 어떻게 부분적인 회개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주님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길로 완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스가랴 7장과 8장의 연대, 하나님은 이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그에게 오십니다. 이 모든 일은 기원전 518년 12월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야간 투시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시점입니다. 성전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기원전 515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책의 이 부분에서는 건물과 성전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사람들은 7장 3절에서 질문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수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섯째 달에도 계속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이것은 지도부가 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들이 묻는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섯째 달에 금식함으로써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멸망시킨 때이다. 이 금식은 유다 역사에 일어났던 재앙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단식을 겪는 동안 그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기회이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백성들의 회개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곱째 달에 금식이 있었다고 말하는 7장 5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포로 이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일어난 유다 총독 그달리야의 암살을 기억하기 위해 일곱째 달에 금식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4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국가적 재난을 기념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의식적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금식을

계속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러한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포로 생활이 끝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여기서의 문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포로생활 중에 계명에 불순종한 당신을 심판하고 벌하셨다는 사실을 당신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배 생활이 끝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넘어서고 싶다면 문제는 금식을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명령한 일을 행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장에서 본 것보다 더 깊은 수준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1장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이 재건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제는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만큼 온전히 회개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장 9절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진실한 판단을 하며 서로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유배 이후에도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습니다.

선지자는 금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스가랴 7장과 8장에서 하나님께서 거짓 예배에 감명을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로기 이전 기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희 희생제물과 노래와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리라

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화려한 희생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더 이상 나에게 오지 말고 내 뜰을 짓밟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가 손을 들고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네가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행한 일로 인해 네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짓을 그만두고 진정한 정의를 실천하십시오.

Frank Laubach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형태의 나쁜 헌신에 지쳤다면, 하나님도 아마도 당신만큼 그것에 지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졸린 헌신, 금식, 이 의식에 정말 지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고자 하신 것은 참된 정의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음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만 여전히 여러 면에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것은 실망스러웠고 그들은 여전히 외국의 탄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미래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8장 4절을 반영하는 구절 중 하나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나이가 많아서 각자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시 예루살렘 거리에 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거리에는 거리에서 놀고 있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이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다면 내 눈에도 기이하겠느냐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서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성실과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아이디어를 연습합니다. 사람들을 기다리는 더 많은 귀환과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능가하는 미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인해 실망하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 주어진 회복의 약속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확장하고 제공합니다.

복원에는 1단계가 있지만 앞으로 2단계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예비하신 일에 대한 더 깊은 성찰(8장 20~23절): 사람들이 아직 올 것ियो, 곧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단번에 올라가자 하리로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며 이르기를 나도 가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구하며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때에 각 방언하는 족속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을 붙잡고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을 들었노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미래에는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올라오는 나라들이 포함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는 바벨론 군대나 시리아 군대는 없을 것입니다.

열방은 여호와를 경배할 것ियो 열방 중에서 열 명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인 순례자를 붙잡고 말하되 우리도 함께 가자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비하신 미래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러한 축복은 백성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진실로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16절에 이 모든 약속 가운데서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참된 판단을 하여 화평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악한 일을 꾀하지 말라. 정의로 돌아오면 온전한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즉 부분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부분적인 회개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축복을 가져올 온전한 회개로 이어질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스가랴 9-14장의 메시지로 인도하는데, 여기서 초점은 가까운 미래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아직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지만 주로 즉각적인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의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스가랴 9-14장은 좀 더 확장된 방식으로 향후 복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8의 강조점은 귀환에 있습니다. 9-14절의 강조점은 복귀를 넘어서는 복귀에 있습니다.

이제, 소선지서에서 발생하는 서론적 문제 중 하나와 중요한 저자 관련 질문 중 하나는 비판적 학자들이 종종 스가랴 9-14장을 1-8장보다 늦은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 자료는 스가랴 시대보다 훨씬 이전인 8세기의 것으로 추정되거나, 8세기부터 2세기까지 존재하는 일부 자료의 연대를 추정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주된 이유는 묵시적인 장르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늦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말에 초점을 맞춘 묵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늦은 날짜를 주장하는 이유가 됩니다. 스가랴 9-14장에 나타나는 사회학적 긴장은 나중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장 13절에는 그리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인과 아시리아 왕들이 야완을 언급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늦은 날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문제에 관계없이, 비판적인 학자들이 데우테로 또는 트리토 이사야에 대해 주장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듀테로-스가랴를 보는 주요 문제 중 일부이며, 이 자료가 매우 잘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6세기 후반은 스가랴의 사역 말기이며 그 연대로 추정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는 스가랴 1-8장에 자료의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간 투시를 위한 데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7-8장에는 금식에 관한 질문에 관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신 대답의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9-14장에 나오는 두 가지 주요 부분의 날짜는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가랴와 두 번째 스가랴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 일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정경의 통일성이며 이러한

것들이 정경에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랴서의 이 두 부분에 담긴 메시지는 서로를 매우 훌륭하게 보완합니다.

Mark Boda가 책의 통일성과 관련하여 지적한 것 중 하나는 두 책 사이에 공유되는 많은 어휘가 있을 뿐만 아니라 1장에서 현재로부터의 멋진 후속구도 있다는 것입니다. 6장과 스가랴 9-14장 7-8장에서는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회개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7-8장은 가까운 축복과 즉각적인 축복,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회복으로부터 재림과 그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끈다.

목시문학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해온 한센은 여기서 발견되는 목시문학의 특징을 토대로 이 자료의 연대를 6세기 중반에서 4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스가랴의 예언에 어떤 식으로든 추가하거나 명확하게 하거나 확장하는 예언적 목소리가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이것을 2세기 후반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앤드류 힐(Andrew Hill)은 스가랴서 9-14장의 언어를 보고 이 언어가 기원전 515-445년에 매우 잘 들어맞는다고 말합니다.

스가랴 10-1장의 가뭄에 대한 언급과 우상 숭배에 대한 암시는 10장 1-3절에 있습니다. Mark Bowden은 이것이 사람들이 실제로 성전 재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개서에서 일어나는 일과 매우 잘 들어맞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셨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스가랴 11장의 목자들에 관한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갈등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통치 시대가 끝나는 시점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던 갈등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보고 스가랴 시대와 매우 밀접하게 일치하는 자료를 보는 Andrew Hill 및 Mark Bowden과 같은 매우 유능하고 뛰어난 학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일부가 이 책에 나중에 추가된 내용을 반영하는지 여부, 궁극적으로 스가랴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언적 목소리가 있는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표준적인 증거는 우리가 통일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Danny Hayes는 책의 두 부분을 서로 연결하는 표어와 유사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어휘의 차이가 있다면 1~8장과 9~14장에 반영되는 차이는 여기서 벌어지는 장르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자들이 이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지적인 차이점은 두 명의 작가가 아닌 장르의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식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경험하게 될 회복의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70년 후에 그 백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전 예언을 분명히 밝히고, 사실은 7주일 중 70주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로생활 70년을 넘어서는 길고도 긴 기간이 된 셈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사가랴의 종말론적 환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것을 가리키는 초기 수익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재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적들을 다스릴 미래의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 9-10. 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큰 소리로 외쳐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며 나귀 곧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따라서 다윗 가계의 회복에 대한 예언적 약속은 10장 6-12절에 나오는 스가랴의 궁극적인 종말론적 비전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구약성서에서 예언이 발전하고 발전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래에 일어날 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로기 이후 초기에 스가랴와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미래와 더 큰 재림을 가져오실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종말론적 비전을 넓혀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역사 전체에 걸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큰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환을 넘어 미래의 귀환은 스가랴 10장 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요셉의 집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므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리라. 그러면 그들은 마치 내가 그들을 거부하지 않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므로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8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모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었지만 그들은 이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먼 나라에서는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10절.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가 여기서 언급하는 나라들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본향으로 데려오며 앗수르에서 모아들이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가서,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까지 하겠다. 사가랴는 그들을 이집트와 앗수르에서 데려오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가랴가 8세기 이전의 예언적 신탁과 앗시리아 위기 당시의 예언을 사용하여 아직 미래에 있을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과정과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포로 생활에서 단 한 번의 귀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명에서 돌아온 일련의 일이 있습니다. 일련의 구원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NT Wright는 이 점을 강조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바벨론이나 로마인에게서뿐만 아니라 사탄과 그들의 죄에서도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두 번째 출애굽, 궁극적인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즈 에가라는 이러한 복귀 패턴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서 그들은 회개했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시작 부분에서 호세아가 문제를 제기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음란의 영이 있어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호세아 14장 4절
마지막에는 내가 그들의 배교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 12장 시작 부분에서 앗수르 시대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끝 부분에서는 우리가 포로 기간 이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치시고 고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배교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법을 쓰시거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내용을 보완합니다. 스가라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때에 애통하게 하리니 그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회개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은혜와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요엘서에 있는 약속과 연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13장 1절과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없이하실 것이라.

주님은 땅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정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심판이 엄하고 무서운 것만큼 심판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멸망시키거나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더러움을 일소할 하나님의 심판의 타오르는 불이 있을 것입니다. 사가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는 샘이 열리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정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다시 기억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또한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들을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우상숭배,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선지자들.

나는 그 땅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할 것이다. 이 판결은 그 모든 것을 제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예언하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그를 낳은 부모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께 너무나 헌신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들이 감히 그 땅에 우상 숭배를 들여온다면 신명기 13장의 형벌을 그에게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 있을 것입니다.

4절, 그 날에 선지자마다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할 것이다. 나는 젊었을 때 나를 팔아넘긴 사람을 위해 땅을 파는 일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등에 있는 이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는 내가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를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더 이상 감히 백성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거짓 예언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할 것이며, 과거의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12장과 스가랴 14장에서도 장차 그 땅을 침략하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12장과 스가랴 14장에서 보는 것과 약간 다른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적 미래에 대한 스가랴의 이해는 포로 기간과 포로 이전의 선지자들보다 더 자세하고 발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데려오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언적 미래에 대한 그의 이해는 또 다른 침략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백성을 정결케 하는 심판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후, 그리고 적의 침략과 공격과 패배의 순환이 반복된 후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공격한 땅의 나라들은 남은 자들이 되고 남은 자들은 여호와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침략, 패배, 유배의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절과 스가랴서의 이 부분의 전체 초점은 귀환을 넘어서는 귀환, 즉 하나님께서 미래에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실 더 큰 회복과 구원의 사역에 있습니다. 나는 책의 이 부분의 메시지를 전개하기 위해 여기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에 나오는 메시아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있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섹션에서 미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강조점을 고려하여 몇 가지 중요한 메시아 관련 본문이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서는 이 구절 자체가 실제로 보고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메시아적인 방식으로 읽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에 있는 내용은 확실히 미래의 이상적인 다윗 왕조의 통치자인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에서 우리는 종종 사건의 예언적 시간표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스가랴는 이 미래의 통치자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시간표 측면에서 여기에 완전히 전개되지 않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다른 세부 사항도 있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밖을 내다보는 저 사람과 같고, 멀리 두 개의 산이 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 즉 왕국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약속하신 축복과 것들을 봅니다. 그는 재림 때, 최후에 이르게 될 축복을 보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를 모르고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왕은 공의로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나귀를 가졌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에 대한 일종의 일시적인 인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완전히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은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0절부터 13절까지에 이 왕이 행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의 통치와 통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그 땅에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일은 재림 때까지 성취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스가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당나귀를 탄 왕의 등장이 있고, 스가랴 9장부터 13장까지는 왕이 그의 원수들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승리의 통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메시아에 대한 비전은 스가랴서 약속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날 복원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비추어 신약성서는 이 부분 전체를 메시아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11장으로 갑니다. 여기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 전반에 걸쳐 다루어야 했던 무가치한 지도자들과 무가치한 목자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10장 2절과 3절에 이 악한 목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드라쿨라들에게 점술가들은 거짓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며 헛된 위로를 줍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양처럼 방황하며 목자가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잘못된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에스겔 34장에는 백성을 돌보는 커녕 백성을 잡아먹고 학대하며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한 유다의 쓸모없는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에스겔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나쁜 리더십을 뒤집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무가치한 목자들을 미래의 다윗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을 목양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 왕조에게 바라셨던 그런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시대에도 여전히 나쁜 목자와 나쁜 지도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를 극화하기

위해 스가라는 11장에서 이러한 거짓 목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예언적 드라마 또는 예언적 표징 행위로 보이는 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도력을 거부했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심판을 초래한 이 쓸모없는 목자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라 11장에는 무가치한 목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스가라 11장을 읽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가라 11장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와 그들이 이 나쁜 지도자들을 견뎌온 전체 역사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드라마일 수 있습니다. 또한 포로 이후 공동체에도 존재했던 리더십의 종류를 언급하는 구체적인 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는 스룹바벨의 총독 통치가 끝나갈 무렵, 대략 기원전 510년쯤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고, 백성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지도하지 않는 다른 무가치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스가라가 목자의 역할을 맡아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목자처럼 행동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유다가 과거 역사에서 가졌거나 현재 역사에서 경험했던 무가치한 지도자들을 그가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팡이 중 하나인 호의(Favor)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부여하실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Union이라는 다른 직원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을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라가 이것을 실천할 때 여기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나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어쩌면 현재도 이런 나쁜 리더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좋은 지도자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의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양하실 것입니다.

저는 스가랴가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 백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쁜 리더십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고 그들에게 올바른 지도자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스가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함께 살고 상대해야 했던 나쁜 지도자를 선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드라마의 연기에서 이 표적 행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지팡이의 은혜와 연합을 빼앗아 그것을 깨뜨리고 백성과 맺은 언약을 파기합니다. 보세요, 저는 목자의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목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서 전반에 걸쳐 선지자들이 표징 행위와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실천할 여러 곳을 보아 왔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대한 백성의 속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항아리를 깨뜨려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깨뜨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에게 갑니다.

토기장은 진흙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형성하고 개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지자가 전파하려는 메시지를 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여기서 일어날 심판을 연기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것이 11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 앞에서 한동안 이 일을 한 후 호의와 연합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꺾습니다.

그 날에 내가 언약을 폐하였으므로 나를 지키던 양장사하는 자들이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도력을 거부한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은 12절에서 스가랴가 만일 당신들이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봉사해 왔으며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내 품삯을 주십시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봉사한 이 시대의 삯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은화 30개를 받았습니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노예의 임금 또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스가랴가 있습니다. 그는 기름부음받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그는 이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선지자이다. 그는 주님을 대표했으며 주님은 백성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막이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지도자로서 당신은 노예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것을 취합니다. 그는 은화 30년을 성전에 던졌는데, 이는 아마도 이 초기 단계에도 존재하는 숭배의 부패를 반영했을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 관계를 끊는 둘째 지팡이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 대신에 부패하고 악한 목자들의 잘못된 지시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이야기를 추적하고 신약성경을 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와의 명백한 연관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예수님의 배반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로 은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것을 스가랴 11장에 나온 드라마의 성취로 봅니다.

유다가 예수를 거절하고 배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메시아에 대해 대부분 반영한 거절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스가랴 11장이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직접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 반역과 그들이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루는 예언이자 표징 행위에 가깝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유로 그들은 여전히 이 부패한 목자들의 지도력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1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더 큰 회복의 메시아적 맥락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분명히 연결하는 모형과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사람들이 그들의 목자이신 주님을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와 지도자들이 함께 공모하여 예수를 배반하고 그를 죽음에 넘기려고 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어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견져내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그 리더십을 거부했습니다. 그 배신의 대가는 노예의 삶입니다. 유다는 노예에게 주거나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관계나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메시아인 예수의 리더십보다 더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형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주님을 거부한 것은 복음서와 마태복음 27장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거부할 것을 예고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로기 이후 기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을 자신들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한 것과 그분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을 위해 하시고자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경험하신 거부 사이의 유형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장래의 회복을 바라노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를 볼 때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인 꿰뚫는다는 개념은 군인이 전투에서 칼에 찔렸을 때 입는 상처를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심각한 상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거부하는 일은 11장에서 배신이나 노예 삶의 고통으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그들의 지도자이신 주님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이 거절은 마치 그들이 여호와를 거절한 까닭에 용사에게 상처를 입힌 것과 같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이 약속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을 배척했다는 것과 주님을 배척한 것이 군인의 칼에 상처를 입은 것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는 스가랴 시대에 백성들이 야훼를 거부한 것을 언급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군인들이 창을 들고 예수님을 찌른 일이 스가랴 12장의 성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 특정한 일이 예수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정확하고 명시적인 예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백성들이 배척함으로 주님을 상하게 한 것과 같이,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척함으로 인해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을 때까지는 일어나지 마세요. 자, 이 모든 것의 메시아적 연관성은 스가랴 12장의 맥락에서 우리를 이 문제로 이끄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장 11절에서 그들이 자기 죄를 슬퍼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회개할 때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는 예루살렘의 애통이 므깃도 평지의 하닷과 리몬의 애통만큼 클 것이니라

그 땅이 각 가족이 따로 애통하며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그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며 모든 백성과 애통하는 지도자들이 따로 애통할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므깃도에서 일어난 애도를 언급할 때, 아마도 여기서 역사적 언급은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왕인 요시야가 그곳에서 죽었을 때 국가적 재앙이 있었던 때를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왕은 죽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는 아직 39세의 젊고 활력 넘치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의 애도의 시기는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있었던 애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국가적 재난의 때를 돌이켜 보면, 백성들이 가졌던 비탄과 애통은, 결국 그들이 주님을 버렸음을 깨닫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로서. 그리고 그 때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찔렀으며 또한 그를 배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아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칼아 깨어나 내 목자, 내 곁에 서 있는 자를 치라 하였느니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내가 손을 뻗어 온 땅의 어린아이들을 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삼분의 이는 멸절되고 삼분의 일은 살아남게 되리라.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니, 목자는 칼에 맞고 양들은 흩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예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없지만 더 넓은 메시아적 맥락 때문에 신약에서 예수에게 적용되는 모형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여기서 치임을 당하는 목자들은 이스라엘을 인도한 무익한 목자들이요, 13장 1~13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결케 하실 땅의 죄인들이니라 아훗. 이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멸절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미혹한 목자들, 악한 목자들도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목자들에 관한 이 구절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엔 여기에 하나의 유형론, 비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에서 목자가 패하여 백성이 흩어지듯,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패하시면 제자들이 흩어지고 흩어지며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표의 가장 큰 장점은 맞을 목자와 양이 흩어지는 심판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맞을 목자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백성의 회복을 이끌고 가져올 것인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는 스가랴 9장부터 13장까지를 회복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는 구절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부분 전체를 메시아적인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회복 이상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 중요한 부분은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스가랴에 관한 첫 번째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궁극적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재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일 사이에 있는 지금과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셨고, 우리가 이미 왕국의 시작과 시작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므로 우리는 왕국의 궁극적인 도래가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과 그 왕국 약속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인물과 그분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 성취하실 사업과 일들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Gary Yates 박사와 12장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28번째 세션, 스가랴 2부입니다.